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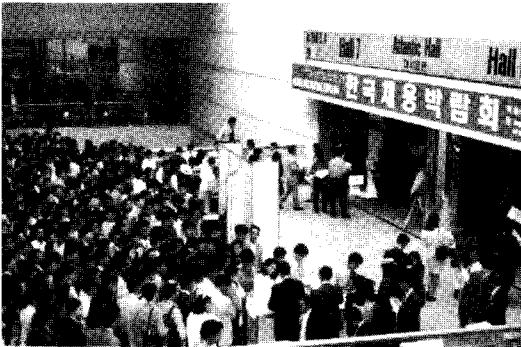
취업시리즈

"채용은 현상의 흐름" 그 흐름에 리듬있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자신을 연출하라

〈完〉비인기학과 출신의 취업전략

김 농 주
(직업평론가)

비교적 취업시장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학과를 취업에 있어서의 비인기학과라고 한다. 따라서 비인기 유형의 전공자들이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비전공분야의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단계의 절차가 필요할까? 첫째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의 직업영역을 세분화하여 자신이 택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에 예로 들어 보자. 인문계 학생이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정보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간 인터페이스, 시각기술인 필적·음성인식·자연언어분야·그래픽·소프트웨어·영상문화·원전통계·비디오·광학·전자·식별분야의 소프트웨어인 컴퓨터 모델링·실용소프트웨어·시뮬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한국종합전시회(KOEX)에서 개최되었던 '94 한국채용박람회' 모습

취미나 관심분야에 대한 꾸준한 자기 개발 필요
전공에 관계없이 기회균등한 첨단정보산업 유망
국제화 걸맞는 세계적 식견도 길러야

공급회사(Cable Network Program Production), 50여개의 각 지역 종합 유선 방송국(Studio Organization), 2개 이상의 네트워크 설치회사 등으로 1994년 가을 현재 열심히 출몰을 준비 중에 있다.

제작하는 직종은 다양하다. 기획, 행정, 관리직, 아나운서, 엔지니어, 디자인직, 프로그래머, 전 문연구자 등은 언론계출신 남 녀 학생들에게는 진출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공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학과 제한없이 길게 있는 프로그래머직은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88서울올림픽, 94년 히로시마 아시아 경기대회와 중 전제 종합과 특기할 사항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여 알고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

둘째로, 새그넷CATV(T.730-5411), 새그넷CATV(T.786-6260) 등 여성전문 CATV에 진출할 기회도 있다. 50분 단편, 30분 정도의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제작해 보라.

셋째로, 새그넷CATV에서 지난 1년에 실시한 시험 행형을 분석 해본 결과 "취미가 적적해지고 있는 여성 유형의 프로그램이

비인기학과 대열생들에게 최근 인기가고 있는 외국인 회사의 입사전파는 무엇인가?

1997년이 되면 시장개방률이 약 97.2%에 육박할 주변의 제 회사는 약 3355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 은행업, 의료, 무역업, 유통업, 광고, 중

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는 심사부 영의 일. 마지막으로, 자금부문을 주로 다루게 되는 자금담당직(Junior Treasury dealer position) 등의 영역이 기대된다.

외국에 은행의 입사지 인터넷은 채용의 판정이 되고 있다. 스마트(Smart)한 인상(impression), 경제실용성 등에 대한 개념(Economic Conception)이 있는가, 수리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 근본 전략이 된다.

채용은 현상이다. 이 현상 흐름에 리듬있게 자신을 적절하게 연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연성을 보여라. 자신의 유연성을 대를 만들었기에 해주어 어려울수록 좋은 직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강단시론

이 태 속
(문리대교수 사학)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등 대형사고가 줄은 것 같지만, 오히려 줄어든 것은 운운 현상의 상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각종 원인 분석과 대책의 제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지금의 정국이 또 한 번 풀릴까? 라는 의문 때문에 "있지 말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수대교의 붕괴는 적어도 새 다리가 건설될 때까지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한강을 건너 출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모든 서울 시민이 성수대교의 붕괴로 교통체증이 한층 더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매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다리를 사들인 것이 없겠고 공인하고 있으므로 이 불행은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강을 건너 출몰하는 나는, 이런 학기에는 지각하여 갖는 것만 일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다짐하고 있지만 다음 학기에는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복습한다.

고통계속 지속 불가피

원래 대학교수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스럽다고 알려져 있다. 대학교수와 거지와

노동의 리듬을 자기 편의에 맞춰 조절해왔다. 독립성이 많이 상실된 현대의 단계에서도 수공업직은, 일감을 받아오는 초기에는 만만해졌다. 남부일 직장에 행렬하게 일하는 자들의 집에서 공장으로 마치고 기계공장이 사용된 산업사회에서 비로소, 노동은 기계의 리듬과 분업체제에 맞추어지고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는 한편으로는 공장주가 제약을 행하는 등 가혹하게 강압함으로써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시대의 요구와 개인적 의지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산업사회의 고도로 발전하여 전제체제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규칙적 노동은 관은 선진적, 합리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가 1950년대와 60년대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은 운운하면서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사회 질서화한 것은, 산업의 근대화에서 비롯된 시간강박과 노동강박이 근대화의 과정에 따름이 아니다.

따라서 등장 "10"라고 일컫는 학원적 출신시간제와 규칙적 시간노동자는 그 자체가 합리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예

종합 강의시간표 遺憾

규칙적 시간노동 합리화는 잘못
시간표작성 교수사정 참작해야

의 공통점이 다섯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첫번째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이 자유는 강의시간표에 대해서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작성되어 각 교수의 사정이나 선호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수준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년별 강의시간표를 대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종합강의시간표를 채택하여 일반의 통념을 썼는데, 일괄적으로 작성되어 나오는 강의시간표가 지금의 교무행정에서 나를 불안하고 근심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나의 반언은, "정제"라든가 "합리화"라든가 또는 현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대학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공격받기 십상이니, 종합강의시간표를 채택할 당시 나온 말들이 강의시간의 "합리"적 이용이라든가 교육의 적정성으로서 시간강사의 용의가 요청된다 등이었으므로, 비단은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모아 집 듯하다. "교수평가"의 "절수"도 낯선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 부산물일 뿐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까지 규칙적으로 일하는 노동방식은 산업사회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 밀착된 농업사회에서의 노동은, 동행하, 농민기다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필요할 일을 논점적으로 불규칙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전산업사회에서는 수공업자도

를 들어 고용자의 이윤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보아, 규칙적 시간노동을 전제로 하는 월급 제는 반드시 합리적인 합리화가 아니다. 맥 시가들이 월급제를 "정제"하고자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공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급제 채택되고 있는 사실이 그 증거다.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는, 근대산업이 중요한 중앙통제된 획일적 노동시간제자 "비례의 물결"에 밀려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예들 중 비례근시간의 선택과 채택근제 등 눈앞에 보고 있지 않은가?

미려의 물결에 밀려나

사람의 삶은 대부분 노동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노동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하나이므로 알베르 카뮈도 "노동과 문화의 조화"를 인류의 과제 중 으뜸으로 꼽았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특정한 산업계에서 요구된 규칙적 시간노동을 합리화하여 도덕적으로 평가는 근시안들은 여기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 같다. 물론 "문화세계의 창조"도 어려울 것이다.

나의 제언은 구체적이고 간단하다. 강의시간표의 작성을 이전처럼 학과와 단과대학에 맡겨서 교수의 사정이나 선호가 어느 정도 참작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학교 교수의 "학원의 민주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비디오전문지를 정기구독하는 부장님
사사지를 달마다 꼭 챙겨읽는 신입사원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포용력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회사~'현대자동차'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비디오전문지 정기구독하는 부장님, 사사지를 달마다 꼭 챙겨읽는 신입사원.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신세대와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신 비디오무브는 뭐고, 요즘 뜨고 있는 비디오스타는 누구고...

반면, 신세대가 무조건 경박하고 감각적이라는 편견은 절대 틀렸다고 주장하는 김도사원은. 일간사지는 물론, 경제사까지 골고루 읽는 사사지문과, 이렇게 현대자동차에는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져있고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갔다.

